

지역 이야기

김제시귀농귀촌협 역량강화 워크숍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조정희)는 17~18일 2일동안 푸른 바다와 낭만이 있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도에 귀농하여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풀개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제주 귀농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활동복 지원 사업 '호응'

김제시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곽정근)는 19일 2차 정기회의를 추진하고, 복지기동대(대장 최경국)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 아동의 신체발달을 위한 활동복 지원 사업을 펼쳐 지역에 큰 호응을 받았다.

이동 활동복 지원 사업은 다양한 활동으로 정서적 함양과 신체적 성장이 필요한 2006년생~2013년생의 소외계층 아동(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운동복을 지원해 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역 내 4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날 오전 위원들은 1시간여에 걸친 정기회의를 통해 향후 특색사업 논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의 향후 과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복지기동대와 함께 준비한 상·하의 기능성 의류, 티셔츠를 한 세트씩 정성껏 포장해 40명의 아동들에게 활동복을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영양교육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경로당 60곳을 선정, 1월부터 4월까지 2회씩 상반기 영양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19일 보건소에 따르면 교육내용으로는 나트륨 배설을 돕는 과일을 이용한 건강우유 만들기, 식품첨가물을 이용한 가짜버나나 우유 만들기, 저염식 식생활 실천 방법 교육,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찾기, 보건소 내 연계사업(구강교육 및 금연교육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식품첨가물을 이용한 가짜 버나나 우유와 건강우유를 비교실습 함으로써 교육후 어르신 스스로 제철과일을 이용한 건강우유를 간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르신의 개별 영양문제 상담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만성질환별 식사요법 교육)도 진행하여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동친화도시 물놀이터 사업 추진

완주군, 기관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디자인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이 직접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아동친화도시 물놀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물놀이터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완주군청에서 이뤄진 물놀이터 조성 업무협약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공장장, 배철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부의장,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군은 올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와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아동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아동친화도시 물놀이터를 비봉면 면사무소에 오는 7월 중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물놀이터 조성사업은 완주군어린이·청소년의회가 2017년 아동참여예산사업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된 것으로 아동이 제안부터 제작까지 참여한다.

세이브더칠드런 놀이전문가와 함께 아동이 직접 디자인을 기획하게 되며,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이 직접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아동친화도시 물놀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동디자인 워크숍, 아동이 시공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아동감리단 운영, 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성인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참여과정을 거쳐게 된다.

이에 더해 현대자동차 노사는 2000만원을 후원해 아동의 참여과정과 물놀이터 조성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아동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놀권리 확립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아동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화환경 놀이터를 확대시켜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동진 완주발전혁신연구소 소장, 완주군수 출마



"문화로 완주를 기획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실현하여, 15만 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동진(53) 완주발전혁신연구소 소장이 19일 오는 6.13지방선거 완주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동진 완주발전혁신연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이라는 슬로건과 '문화로 완주를 기획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실현' 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명품도시 완주를 온전히 완성시켜 15만 완주시대를 열기위하여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소장은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군민을 하늘같이 받들어 섬기고, 군수가 직접 일자리 창출 전도사가 되어

군수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일 할수 있는 군민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군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끌어 올려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소장은 민선 6기에서 이뤄낸 농촌형 일자리, 기업형 일자리, 지역특색형 일자리 등을 새롭게 문화와 접목 융합해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를 일 할수 있는 군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도농복합도시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완주군의 3대 비전과 9대 핵심공약을 이날 밝혔다는데, 우선 3대 비전으로는 ▲행복한 군민, 따뜻한 복지 전주 ▲농업과 첨단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전주 ▲인재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 완주를 제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최상철 완주군의회의원, 완주군기초의원 출마



최상철 완주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완주군기초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완주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상 유지만 되었던 삼례, 이서를 확보 싸워 완주의 중심으로 우뚝서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군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니,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직 지역발전에만 전념해 달라는 삼례·이서 주민의 뜻에 따른 것이며, 지역현안은 관계된 채 국회의원 비워나 맞추고 다니는 정당 소속 후보에게 지역살림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인 군의원을 허울 좋은 정당의 거수기로 뽑아서도 안된다"면서 "지역발전이 한창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검증된 후보가 필요하다"며 출마에 변을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한국형 종자산업클러스터 벤치마킹

김제시, 네덜란드 방문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과 기술보급과장, 종자산업지원 실무담당자 등 4명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종자산업클러스터(K-Seed 클러스터) 구축 모델이 있는 네덜란드로 최근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첫날 포엘다르크에 있는 온실시공업체 서튼(Certhon)과 서튼에서 사공한 팔레놉시스 난 생산 온실을 견학하고 리더커어크에 있는 상추 자동화 생산 온실을 방문했다. 다음 날은 네덜란드 유라온실 밀집지역인 WESTLAND 시험과 실용화 연구 및 교육기관인 Delphy Improvement Center를 방문하고 18일에는 구근화훼류의 전시 공원인 코이켄호프(Kuikenhof) 정원을 돌아보았다.

리세(Lisse)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원 면적은 28만㎡(약 8만5,000평)에 달한다.

남은 이들 동안에는 세계 5대 채소종자회사인 라이즈완 분사와 토마토 데모 온실, 파프리카 데모 온실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유통센터를 방문한 후 보렌담 및 치즈마을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으로 뻘뻘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형 Seed Valley의 중심이 될 민간육종연구단지가 2016년말 준공식을 마치고 54ha 규모로 조성(김제시 백산면 일원)되어 작년 말 20개 종자기업 입주와 종자산업진흥센터의 본격적인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채종사업 면적확대 및 품목 다양화를 통해 민간육종연구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김제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로 종자산업 기반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K-Seed 클러스터 조성을 중앙에 제안하고 연구용역 추진을 건의했다.

현재의 연구단지 부지가 좁아 인근 김제공항부지 157ha를 활용, 시에서 발굴한 종자산업 전문인력 육성체계 구축, 종자산업 기능다변화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사업(2,470억원) 등을 포함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사업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선공약 1호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군,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박차

완주군이 2018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주군은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하는 2018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18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1차사전 기획회의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완주군 재난대책본부를 비롯해 완주경찰서, 완산소방서, 한국전력전북지부 KT전주지사 등 14개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단체등 20여명이 참석해 지진발생에 대비한 기

관단체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 지진재난대응 전문기관 서동석 우석대 교수를 초빙해 훈련 실시계획 및 설계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동안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훈련, 지진대피훈련, 불시 화재대피 훈련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민 체감형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